



# 국민연금에 대한 오해와 진실

## Myths and Truths of the National Pension System

이건 (Kun Lee)

DPhil Candidate in Social Policy

Wolfson College, University of Oxford

1 December 2023

# 소개



- DPhil Social Policy (2020-, 4<sup>th</sup> year)
- 2019 MSc Comparative Social Policy
- 2018 BA Social Welfare, BA Economics
- 연구/관심분야: 연금제도, 노동시장정책, 고령빈곤, 불평등, 가족정책, 저출산
- 국가비교연구, 양적연구
- 특이사항: OKAS Committee (2020-21)
- Visiting scholar: Germany (Mannheim, Berlin), Finland, USA



# What is Social Policy?



Family Policy, Gender and Demographic Change  
An Oxford Institute of Social Policy research group



Education, Social Policies and Inequalities  
An Oxford Institute of Social Policy research group



The Politics of Social Policy Reform  
An Oxford Institute of Social Policy research group



Poverty, Welfare and Social Exclusion  
An Oxford Institute of Social Policy research group



Inequality and Prosperity  
An Oxford Institute of Social Policy/ Oxford Martin School research group

- 사회문제에 대한 정책적 개입 (aka 복지 정책)
- 다학제 분야: Politics, Economics, Sociology, Law, History, Psychology, Public Admin., Public Health
- 영국 전공편제의 특수성 (c.f. Blavatnik School of Government)

# 한국의 노후소득보장

3층: 민간연금	<ul style="list-style-type: none"><li>• 퇴직연금: 2005년부터 단계적 의무화, 현재는 연금 또는 일시불 (=퇴직금), 근로자 약 52% 연금형태로 가입</li><li>• 개인연금: 근로자 약 15% 가입</li></ul>
2층: 공적연금 소득비례	<ul style="list-style-type: none"><li>• <b>국민연금</b>: 보편적 연금제도</li><li>• 특수직역연금: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li></ul>
1층: 빈곤완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li>• 기초연금: 65세 이상 소득 하위 70%, 월 323,180원 (1인 가구 기준)</li></ul>

# 국민연금 개괄



- 대한민국 노후소득보장제도의 가장 큰 축
- 1973년 입법 - 그러나 시행 무기한 연기
- 1988년 첫 출범 - 10인 이상 사업장 대상 (이후 점차 대상 확대)
- 1998년 자영업자 포함 전 국민 대상 확대
- 현재 63세부터 수급 (조기수급 58세) → 1969년생부터 65세로 상향
- 보험료율 임금의 9% (사용자-근로자 각 4.5%)
- 평균 소득대체율 40% (2028년부터, 40년 납부 기준, 20년 납부 시 20%)
  - 평생 평균소득 기준, 최소납부기간 10년, 재분배 요소 포함
- 2023년 10월 국민연금 기금 규모 1000조 돌파 (기금 규모 세계 3위)

# 90년생부턴, 평생 내도 한푼도 못받는다... 국민연금 그냥 두면 벌어질 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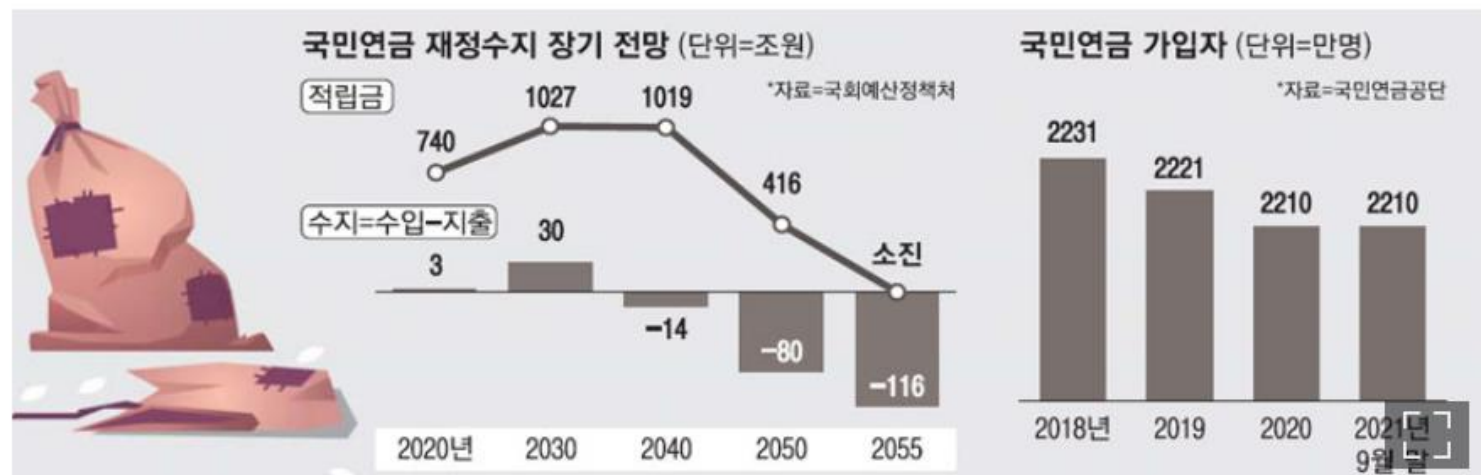
이희조 기자

입력 : 2022-01-13 17:20:56 수정 : 2022-01-14 09:03:07



## 한국경제研, 수급전망 분석

보험료 더 내고 연금 덜받는  
국민연금 개혁 안 이뤄질때  
적립금 2055년 바닥 드러나



사회 : 사회일반

# 국민연금 흔들리는 초저출산...2070년 '월급 42%' 보험료 낼수도

중앙일보 | 입력 2023.03.31 01:52 업데이트 2023.03.31 03:1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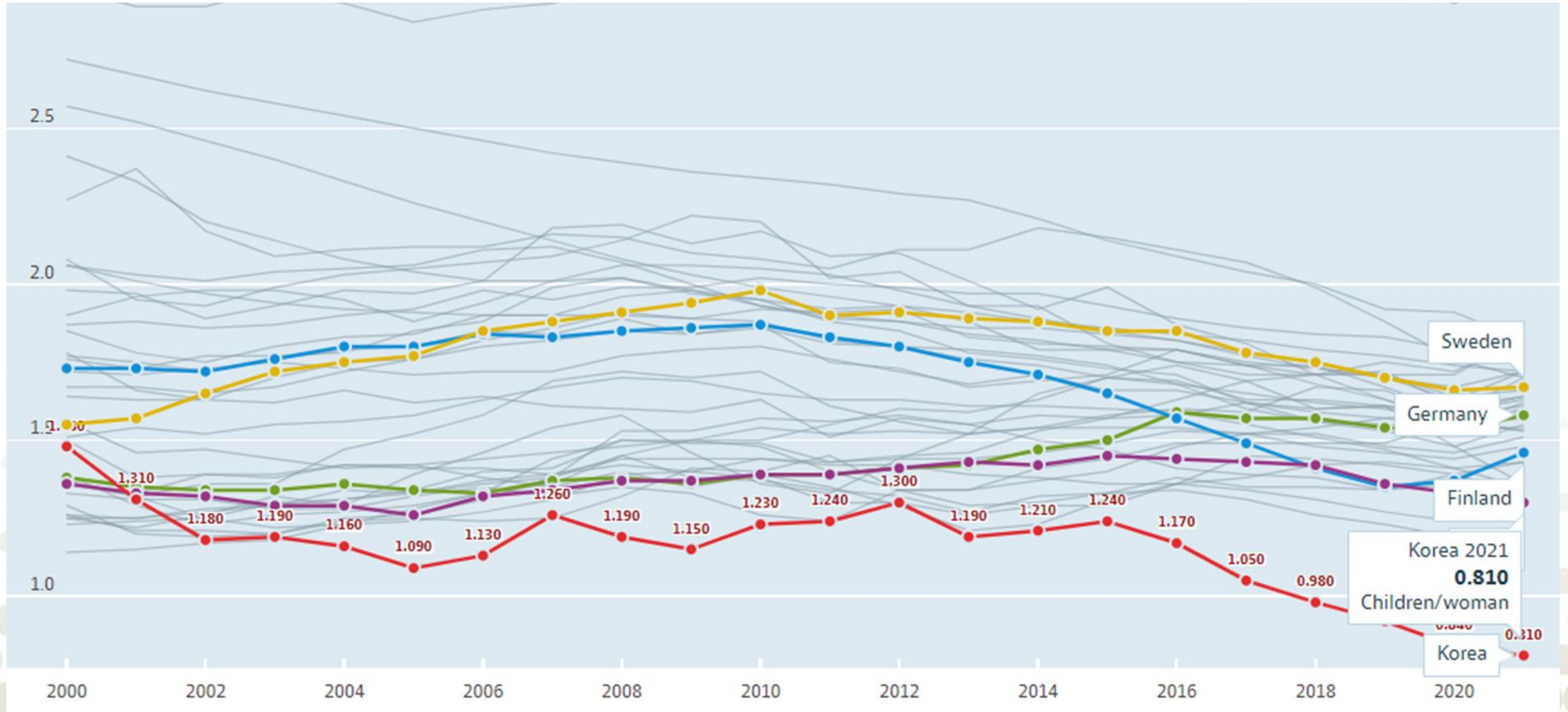
황수연 기자

구독

국민연금을 이대로 놔둘 경우 2055년 기금이 바닥나고 2060년 연금 가입자는 월 소득의 30% 가까이 보험료로 내야 할 것으로 분석됐다. 특히 인구, 경제 변수 등을 조합한 8개 시나리오 중 지금과 같은 초저출산 상황이 이어질 경우 미래 보험료율은 42%까지 오를 거란 전망이 나왔다. 기금투자수익률을 1% 포인트 올리면 기금 소진 시점을 5년 늦출 것으로 예상됐다.



# 합계출산율 변화추이 (2022년 0.78)





# 공적연금의 재정구조에 대한 이해



- 부과식 (Pay-as-you-go) vs 적립식 (fully funded)
- 부과식 (PAYG): ‘현재’의 노동인구에서 돈을 걷어 ‘현재’의 고령인구 부양
  - 연금보험료가 실질적으로는 일반조세와 같음 (현재 노인부양에 사용)
  - 세대 ‘간’ 사회계약: 미래에 나도 받을 것을 믿고 지금 노인을 위해 낸다
  - 인구구조의 변화, 평균수명/출산율에 따라 형평성 문제 발생
  - 기금이 존재할 이유가 없음 (실제 대부분 유럽/미국의 사례, GDP의 10% 미만 규모로 reserve fund만 존재)
- 적립식 (funded): 경제활동을 하는 시기에 기금을 적립하여 ‘미래’에 노후 소득으로
  - 적립된 기금은 은퇴 시기까지 각종 투자를 통해 가치 증대에 사용
  - 세대 ‘내’ 시점 간 재분배 → 일종의 국가 강제저축 프로그램
  - 인구구조 변화와 무관, 그러나 금융시장 변동성에 따른 형평성 문제

# 기금이 고갈되면 연금을 못 받을까?

- 한국: 부분적립식
  - 원칙적으로 ‘현재’ 노동시장 인구가 납부한 기여금으로 ‘현재’ 은퇴자 부양
  - 지금까지는 지출보다 수입이 (압도적으로) 많아 기금을 쌓아 둔 구조
  - 기금 고갈 시 자동으로 부과식 (PAYG) 재정구조로 전환 → 일반조세로 충당
- 그동안 기금이 쌓여온 이유
  - 1988년 출범 당시 최소 15년 이상 기여 조건, 소규모 사업장 배제
  - 65세 이상 고령인구 중 국민연금 수급자 비율 45% (2021 기준)
  - 수급자 비율 증가와 평균 수급액 증가로 기금은 자연스레 고갈 예정
- “지급보장을 법으로 명문화 하자”는 것의 의미

# 그럼 무엇이 문제인가?

- 저출산, 고령화는 기금고갈을 앞당기는 요인
  - 모든 선진국이 겪는 문제 & 어차피 일어날 일이 좀 빨리 오는 것
- 진짜 문제는 (1) 급여-기여 비율; (2) 세대간 형평성
- 보험료율 소득의 9%, 소득대체율 40%
  - Q. 은퇴 후 20년 산다 가정하고 계산을 해봅시다 (물가 고정)

평균소득자 수익비 약 2.0 (영구채 이자 17%)



경제

## [단독] 강남아줌마들은 다 안다는... 짹짹한 국민연금 추납 재테크

김연주 기자

입력 : 2020-08-11 10:20:00 수정 : 2020-08-11 18:49:44



부자 신종 재테크 수단으로 각광  
작년 14.7만명이 추후납부 신청



# 세대 간 형평성 문제

- 1988년 당시 기대수명 71세 (현재 82세)
  - 출범 당시 보험료율 3%, 소득대체율 70%
- 문제는 지금부터: 1960년대생의 대규모 고령인구 유입
  - 약 5-7년 후 국민연금 기금 손익분기점 돌파 예상
- 기금고갈 이후(2055-60년 경)의 연금 지급은 후세대의 기여금 + 일반조세로 충당 (소득의 약 30%)
- 해외 기여금: 일본 (18.3%), 독일 (18.6%), 미국 (12.4%), 스웨덴 (19.54%), 핀란드 (24%), 프랑스 (23.2%)

# 국민'용돈'연금



## "못 받을 세금" vs "그래도 믿어야" 개혁 방치에 MZ서도 갈린 국민연금 [리빌딩 국민연금]

입력 2022.10.11 04:30 | 1면

류호 기자 [구독 +](#)

17 10

월 227만원 소득자, 25년 부어야 고작 월 57만원  
생애 평균소득의 25%... "지금보장 명문화" 확산

[리빌딩 국민연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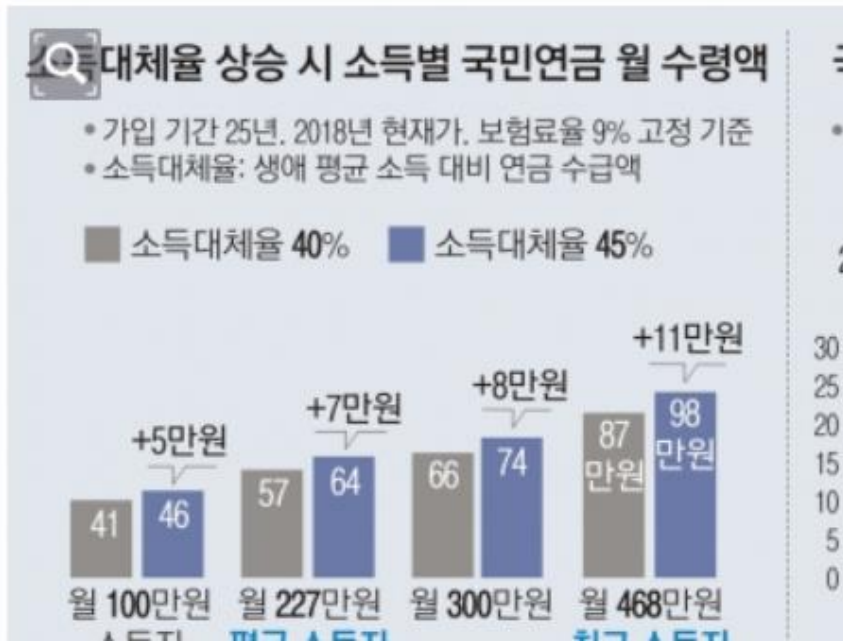
<상> 신뢰 잃은 국민연금

낮은 소득대체율·불안정한 재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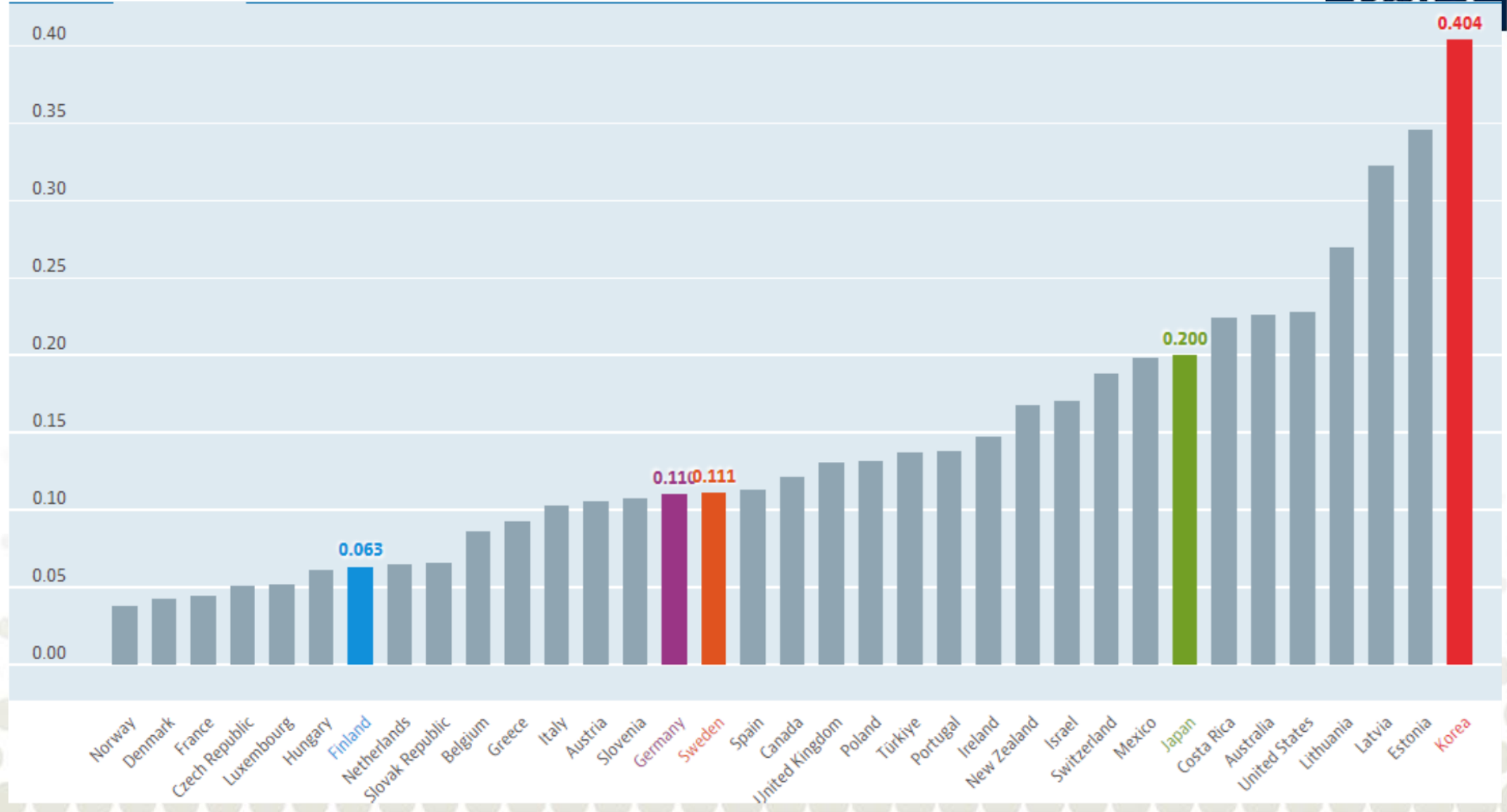
'용돈연금' 이미지로 전락... 불신 커져

그래도 국민연금만 한 노후 제도 없어

"MZ와 함께 연금 미래 담론 만들어야"



# OECD 노인빈곤율



- 1인당 평균 수급액 2023년 현재 월 57만원
- 국민연금의 짧은 역사와 관련
- 기여기간의 이론적 최대치 35년
- '40년' 기여 시 소득대체율 45%
- 1960년대 초반 코호트 평균 기여 기간 남자 17년, 여자 9년 추정
  - 실제로 기여한 금액보다 훨씬 많이 받는 것
- 빈곤: 기초 연금 외 아무 연금도 받지 못하는 노인인구 약 45%

### 최고 금액 수급자 사례



1988년 1월 부터  
 총 25년 11개월 동안  
 국민연금 가입  
 연금 받는 시기 59개월 연기  
**월 연금액 212만 원**

출처: 국민연금공단



증권 &gt; 일반

# 작년 50조 넘게 손실난 '국민연금', 기업 CEO 인사 개입할 때?... 수익률은 뒷전, 상식 벗어나

김태현 이사장, 서원주 CIO 잇단 기업 인사 개입  
10월까지 51조 손실 상황에서 부적절하단 비판 나와



## '80조 손실' 최악 성적 나왔는데...아직도 '빈손'인 국민연금 개혁

머니투데이 | 정현수 기자

VIEW 7,327 | 2023.03.02 15:51

경제 &gt; 경제 일반

## 국민연금, SVB주식 보유...최소 절반 손실

이광호 기자 입력 2023.03.13.11:23 수정 2023.03.13.11:3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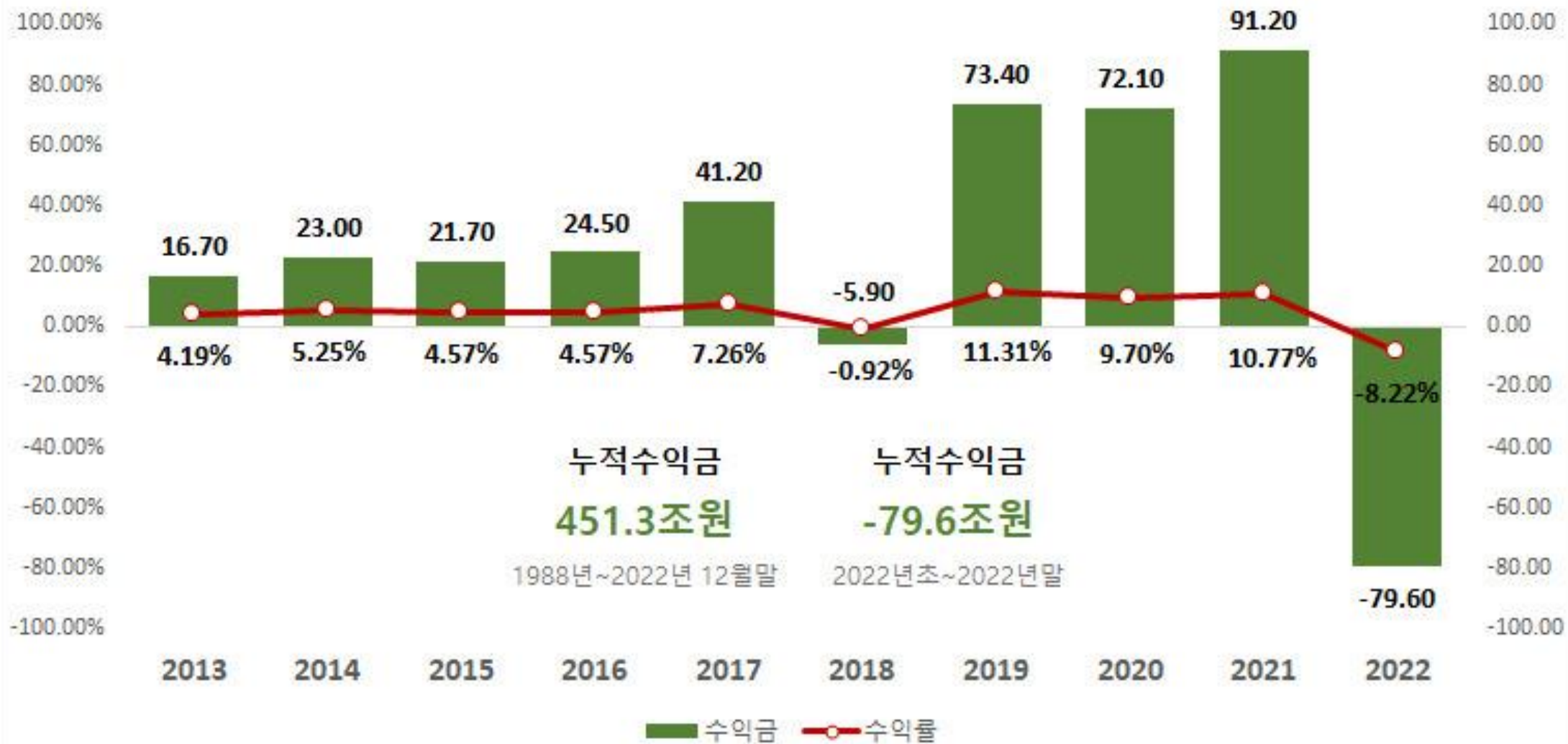
### 국민연금 재정추계 추이

시기(추계시점)	최대적립금	수지적자 발생시점
제1차(2003년)	2035년(1715조원)	2036년
제2차(2008년)	2043년(2561조원)	2044년
제3차(2013년)	2043년(2465조원)	2044년
제4차(2018년)	2041년(1778조원)	2042년
제5차(2022년)	2040년(1755조원)	2041년



# 지난 10년 간 국민연금 기금운용 수익률

(단위 : 조 원, 출처=기금운용본부 홈페이지)





# 기금운용의 딜레마

- High risk, high return vs low risk, low return
- 해외투자 확대 vs 코스피 방어
- 주주권 행사: 정부의 시장개입 vs 주주(국민) 보호

# 간단 요약



- 기금이 고갈되어도 국민연금은 받는다
- 저출산, 고령화의 속도는 기금고갈을 앞당기는 요인이지만 본질적인 문제는 아님
- 진짜 문제는 (1) 기여-급여 규모의 불균형 (2) 세대 간 형평성
- 충분한 노후소득 = 기여기간을 얼마나 많이 확보하는가
  - 불안정한 노동시장의 함의 (청년실업, “그냥 쉬었음”의 증가)
  - 국민연금이 오히려 노후소득 불평등을 심화

# 국민연금 개혁: 고양이 목에 방울 달기



- 결국 기금은 고갈될 것, 그러나 smooth한 전환의 문제
- 보험료율 인상이 핵심 문제
  - 소득대체율 40% 기준 최소 15-18% 까지
- 희망회로: 아직은 시간이 있다.
- 근데 누가 할 것인가?
- 해외 사례: 사회적 대타협, 초당적 협력기구 → 사회적 신뢰 회복, 투명한 정보 공유 및 소통이 핵심

뉴스 7

문 대통령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아”...국민연금 개혁안 전면재검토 지시

입력 2018.11.07 (19:11) | 수정 2018.11.07 (22:14)



동아일보 | 정치

‘맹탕’ 국민연금 개혁안, 국회로... “총선 이후 미뤄질 듯”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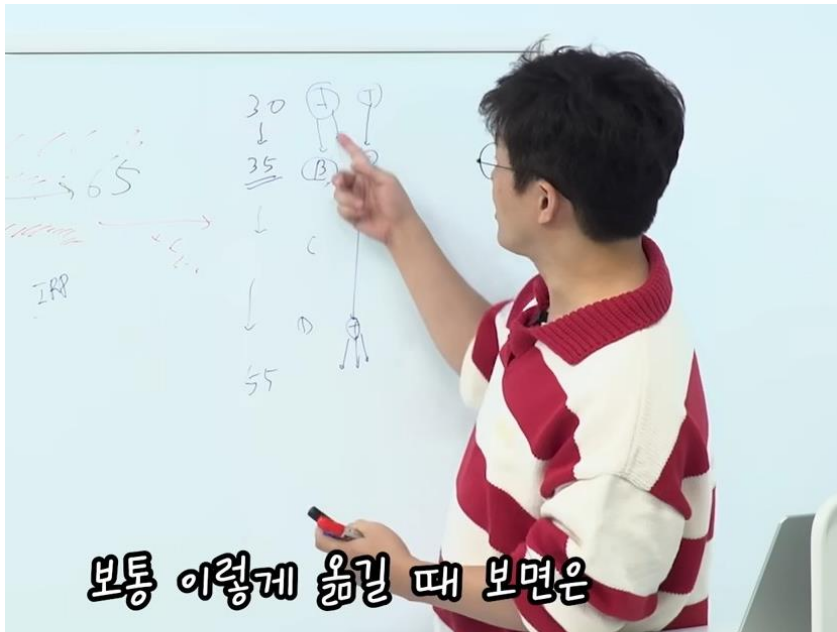
김은지 기자, 최혜령 기자

입력 2023-10-27 16:40 | 업데이트 2023-10-27 18:1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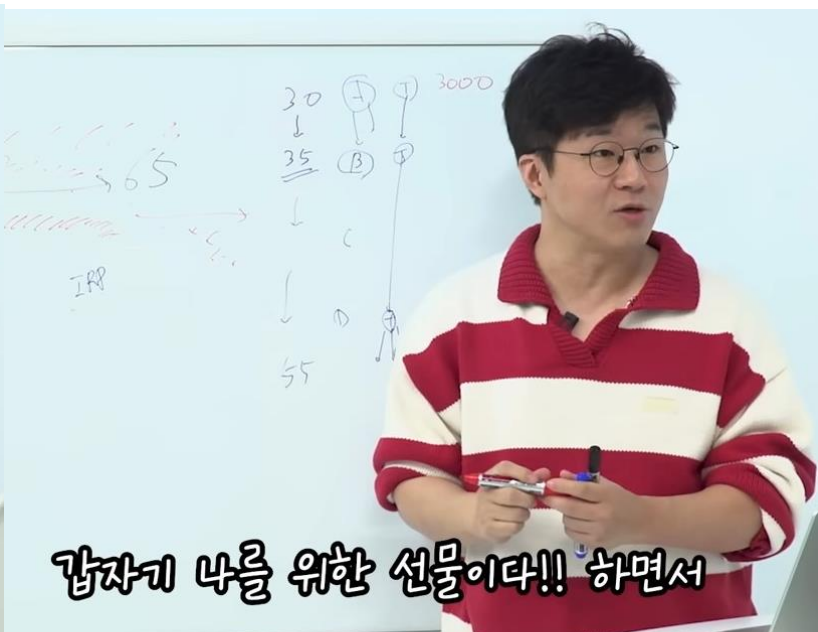
읽기모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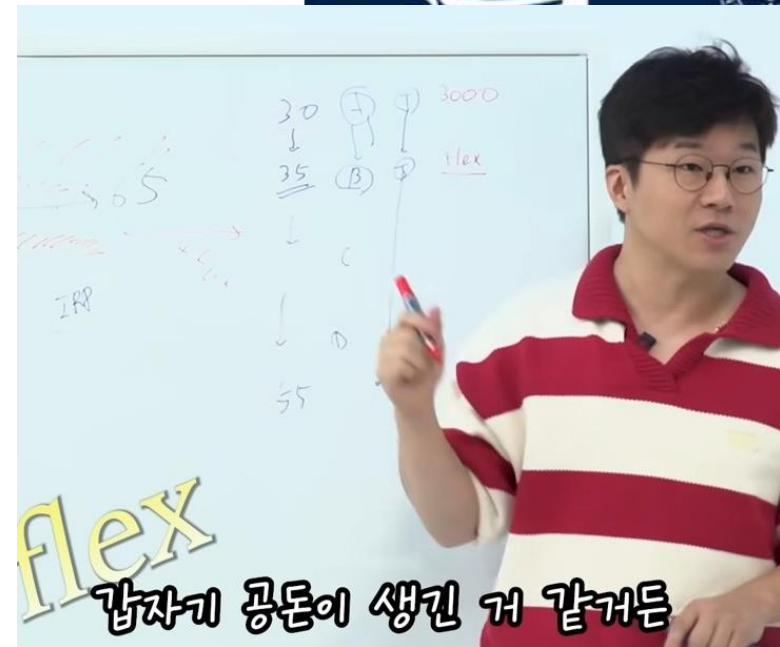
출처: 슈카월드 - 초등학생도 이해하는 퇴직연금의 중요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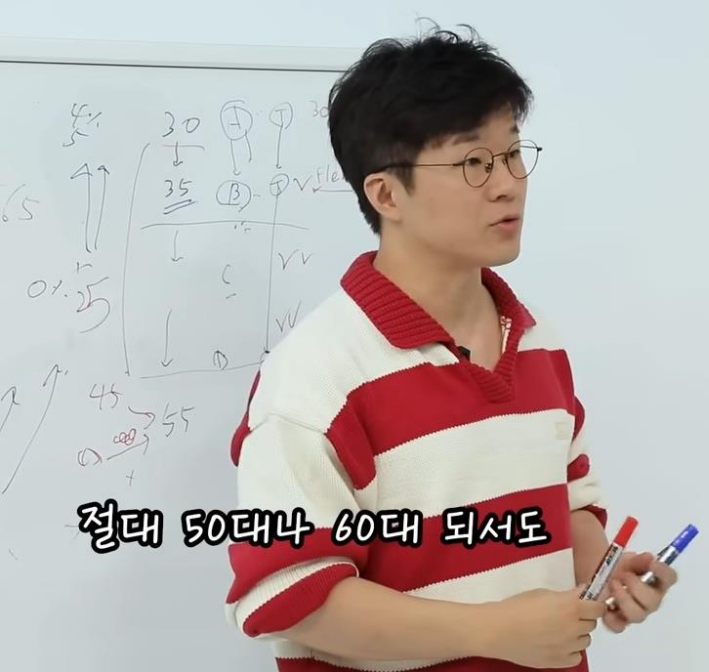
보통 이렇게 옮길 때 보편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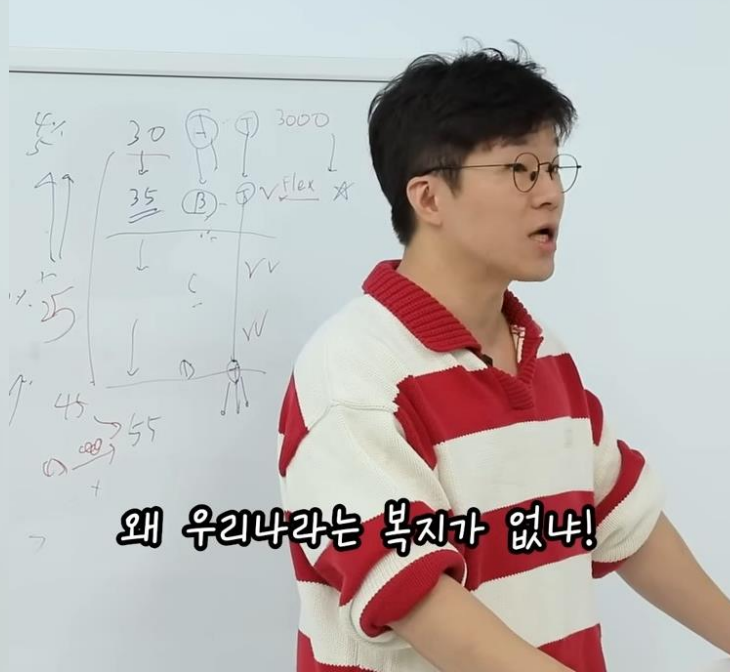
갑자기 나를 위한 선물이다!! 하면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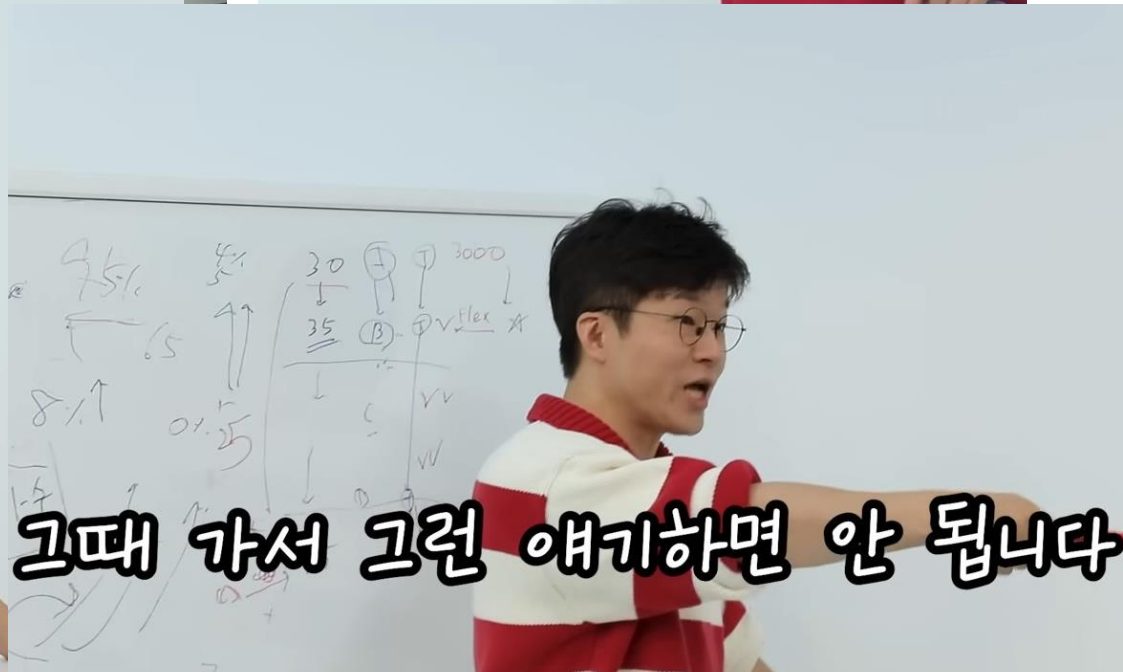
갑자기 공동이 생긴 거 같거든



절대 50대나 60대 되서도



왜 우리나라는 복지가 없냐!



그때 가서 그런 얘기하면 안 됩니다



Thank you  
Q & A

